자녀 양육행동, 아동의 낯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s stranger anxiety, separation anxiety and maternal separation anxiety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 인간발달학과
박사과정 안 지 영
조 교 수 도 현 심

Dept. of Consumer Science &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Doctoral Course : Jee-Young, Ahn
Assistant Prof. : Hyun-Sim, Doh

목 차

Ⅰ. 서 론
Ⅱ. 연구 방법
Ⅲ. 연구 결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s stranger anxiety, and separation anxiety to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 total of 288 middle class mothers having children aged from 36- to 59-month- olds answered to a questionnaire based on 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 (Hock, 1989). They also answered the questions about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s stranger anxiety, and separation anxiety.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s a function of demographic variables.
2.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such as physical contact and discipline involvement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child's stranger anxiety and separation anxiety were also significantly related to maternal separation anxiety.
3. Maternal separation anxiety was accounted for 15% of the variance by maternal physical contact, discipline involvement, and chlid's stranger anxiety and separation anxiety.

I. 서 론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자녀를 떠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을 반영하는 불유쾌한 감정 상태로, 어머니가 아이를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슬픔, 염려, 죄책감, 불편함의 감정을 의미한다(Lutz & Hock, 1995). 이러한 불안은 어머니가 자녀를 통해 얻는 안정성, 보호나 안락감 등이 방해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조복희, 박성옥, 1992). 자녀와 분리될 때 느끼는 어느 정도의 불안이나 걱정은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현상이지만, 불안의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을 경우에는 자녀와의 관계 형성과 이후의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Benedek(1970)은 어머니가 분리경험으로 인해 불안이 심하면, 과보호적이거나 또는 과도하게 몰입된 관계로 인해 개별화 과정과 어머니의 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다(Lutz & Hock, 1995 재인용).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 의하면,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어머니의 심리적 상태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특성뿐 아니라 아이의 건강 및 기질적 특성 등 어머니와 아동의 특성과 관련된다(McBride & Belsky, 1988). 우선 어머니 자신의 특성과 관련된 변인들로는 사회인구학적인 특성과 어머니의 인성적 특성을 들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의 경우, 연구자들에 따라 그 결과는 상당히 비일관적이다. 어머니의 연령이 낮을수록(박성옥, 1993; 송진숙, 1994), 그리고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박성옥, 1993; McBride & Belsky, 1988)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높은 것으로 보고되는가 하면, 이러한 변인들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있다(McBride & Belsky, 1988; 송진숙, 1994; 김은형, 1995). 이와 유사하게 사회 경제적 지위와 관련시켜서도 불일치한 결과를 나타내어, 지위가 낮을수록 높은 분리불안을 보이기도 하지만(박성옥, 1993),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않은 경우(McBride & Belsky, 1988; 송진숙, 1994; 김은형, 1995)도 있다. 또한,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으로 제시되는 어머니의 직업(McBride & Belsky, 1988)은 취업 여부에 따라 어머니의 불안 수준에 차이가 나타나서 직업을 가진 어머니가 불안을 더 느낀다고 한 연구도 있으나(박성옥, 1993), 이러한 차이가 유의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경우(김은형, 1995)도 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분리불안의 차이가 매우 비일관적으로 보고되는 현 시점으로서, 본 연구는 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한편, 어머니의 인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관련된 변인으로는 자아 존중감과 대인간 애정의 측면을 들 수 있다. 즉, 어머니의 자아개념이 부정적이고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분리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Lutz & Hock, 1995; 송진숙, 1994), 대인간의 애정이 높은 경우에도 아이의 감정에 더 동일시하여 분리시에 높은 불안 정도를 나타내었다(McBride & Belsky, 1988). 또, 우울 증세를 나타내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는 경우(Hock & Schirtzinger, 1992)와 전통적인 성역할을 기대하고 선호하여 어머니만이 자녀의 양육자로서 적절하다는 고정관념을 가진 어머니인 경우에도 자녀와의 분리에 대해 강한 죄책감과 불안을 느낀다고 하였다(McBride & Belsky, 1988; 김은형, 1995).

정서적 건강의 측면에서 어머니의 높은 수준의 불안은 과보호적 양육과 관련이 있다. Levy(1970)는 이러한 과도한 분리불안의 원인을 어머니의 '양육의 욕구(need of nurture 또는 affect hunger)'로 설명하였는데 즉, 양육을 해주고 애정을 나눠주려는 욕구가 큰 어머니들은 아기가 자신의 접촉과 돌봄을 많이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 자신의 아이를 가까이 두려하고, 과도한 모-자녀관계로 몰입하기 쉽다(Lutz & Hock, 1995 재인용)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에 근거해 볼 때,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관계되는 다양한 변인들 가운데 양육 행동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아동과의 신체적인 분리시에 나타난다는 점에 근거할 때, 신체적 접촉이 특히 요구되는 생후 초기에 어머니가 자녀를 얼마나 몸에 부쳐서 양육하였는가는 어머니 분리불안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양육 행

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으로 자녀와의 신체적 접촉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와 분리시에 보다 많은 불안감을 경험하기가 쉽다. 또한 어머니가 과도한 모-자녀관계에 의해 자녀를 보유하고 가까이 하려는 특성은 자녀의 성장에 따라 자조능력의 발달이 요구되는 아동 초기에 자녀의 훈육에 대한 개입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아동의 청결 습관, 대소변 훈련 혹은 식사 습관 등의 훈육에 개입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기가 쉬우며, 나아가서는 자녀와의 분리시 불안감을 보다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또한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행동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아동의 연령은 중요 변인으로서 일반적으로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어머니의 분리불안 수준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된다(Hock, DeMeis & McBride, 1988; McBride & Belsky, 1988; 박성옥, 1995). 어머니들은 9개월인 자녀보다는 3개월인 자녀에게 더 많은 불안을 나타내고(McBride & Belsky, 1988), 25-36개월의 영유아를 자녀로 둔 경우보다 6-12개월 영아의 어머니가 더 유의하게 높은 수준의 불안을 나타내었다(박성옥, 1993). 그러나 송진숙(1994)의 연구에서는 아동의 연령이 24개월 이하와 24개월 이상인 경우를 비교한 결과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아동의 성별과 관련시켜 볼 때, McBride와 Belsky (1988)는 여아의 어머니는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 수준이 감소한 반면, 남아의 경우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고하고, 박성옥(1993)은 남아보다 여아가 더 높은 수준의 분리불안을 보인다고 하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송진숙, 1994; 김은형, 1995)도 있다. 또한 아동의 출생 순위가 둘째 이하인 경우, 첫 아이의 경험에 의해 어머니의 불안 수준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박성옥, 1993).

아동의 특성과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관계에 관한 연구로는 아동의 기질적 특성(Humphry, 1986 : 김은형, 1995 재인용) 및 생후 초기의 애착의 질과 관련시킨 연구(McBride & Belsky, 1988)들을 제외하고는 매우 부진한 형편이다. 불안정한 애착아들의 어머니들이 높은 수준의 분리불안을 보였다는 연구결과(McBride & Belsky, 1988)를 비롯하여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아동과의 분리상황에서 보여지는 정서상태라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아동이 보이는 분리불안 역시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리라고 가정하였다. 또한, 아동의 분리불안보다 이전 시기에 나타나는 낯가림은 분리불안의 발생과 밀접한 관련성(박은숙, 1981)이 있음을 근거할 때, 일종의 애착 행동인 낯가림 역시 어머니의 분리불안과도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영아의 낯가림 정도에 따라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행동은 달라질 것이며 이러한 행동은 결국 아동 초기의 어머니 분리불안과 연결되기가 쉽다. 국내 연구결과에 의하면 낯가림은 생후 6개월 경 처음 나타나서 약 3세 경에 종료하며, 아동의 분리불안은 4세 이상이 되어서야 종료되는 것으로 보고되므로(정영숙, 1976), 본 연구는 연구 대상인 3-5세 아동의 경우 낯가림은 이미 종료된 행동으로 가정하여 그 경험 정도를 조사하고, 분리불안은 현재에도 나타난다고 보아 아동이 현재 보이는 분리불안 정도를 조사하였다.

현재로서, 국내의 경우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관한 연구는 매우 드문 편이며, 최근 들어 어머니의 취업과 탁아의 질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 불안을 비롯하여(박성옥, 1993), 어머니의 자아 존중감(송진숙, 1994)이나, 어머니의 역할관 및 역할 갈등(김은형, 1995) 등과 관련시킨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반면, 아동의 발달적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함께 관련시켜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살펴본 연구는 발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와의 분리경험이 잦아지는 유아원 혹은 유치원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의 연령, 교육수준 및 직업, 가정의 월수입과 아동의 성별, 연령 및 출생순위 등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어머니 분리불안의 차이를 살펴본다. 또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낯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생후 36~59개월의 자녀(남아 158명, 여아 130명)를 둔 288명의 중류층 어머니들이다. 어머니의 연령은 30세 이하가 19%, 31~35세가 58.8%이고 36세 이상은 22.2%로서 35세 이전이 대다수(77.8%)를 차지하였으며, 어머니의 교육 정도는 고졸이하가 37.8%, 전문대졸 이상이 62.2%였다. 또한 연구 대상자의 65.5%가 전업 주부였으며, 34.5%가 취업모였다. 가족의 월 평균 수입은 150만원 이상이 83.7%였다.

2. 조사 도구

1)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MSAS(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 Hock, 1989) 중 일부인 '일반적 어머니 분리불안' 영역의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총 21문항 가운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적절하지 않은 문항을 제거하고, 표현을 수정한 후 19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의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아이를 맡길 때 걱정이 된다,' '나는 아이와 떨어져 있으면, 쓸쓸하고 아이가 매우 보고 싶다,' '우리 아이는 다른 누구보다 나와 함께 있는 것을 더 좋아한다.' 등이 포함된다. Likert식 4점 척도로 평가된 본 척도의 내적 합치도에 의한 신뢰도를 산출한 결과 Cronbach' α값은 .85로 나타났다. 점수가 높을 수록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높으며, 척도의 평균은 2.69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 행동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유명희(1980)와 박은숙(1981)의 문항을 토대로 하여 작성한 신체 접촉 정도와 훈육 개입 정도 영역이 사용되었다. 신체 접촉 정도는 아이가 돌 이전까지 어머니가 얼마나 아기와 신체적 접촉이 많았는지를 묻는 내용('얼마나 몸에 부쳐 키웠나?,' '얼마나 살갗을 대는 기회가 많았나?,' '얼마나 자주 안아 주었나?')의 3문항으로 구성된 Likert식 3점 척도이다. 전체 문항의 Cronbach' α값은 .71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 접촉 정도가 높으며, 척도의 평균은 2.69이었다.

어머니의 훈육 개입 정도는 배변 훈련, 스스로 옷 입기, 청결 습관, 식습관의 영역에서 어머니가 아동의 자조 능력 발달에 얼마나 많이 개입하는지를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Likert식 3점 척도로서, 점수가 높을 수록 개입의 정도가 높다. 어머니의 훈육 개입 정도에 대한 4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60으로 나타났고, 전체 평균은 2.04이다.

3) 아동의 특성

아동의 낯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을 살펴보기 위해 낯가림 및 분리불안 각각의 경험 유무를 묻는 내용의 문항(예: 아동이 돌 이전 시기에 낯가림을 경험하였습니까?)과 함께 경험 정도를 묻는 문항(예: 만일 경험하였다면, 어느 정도이었습니까?)을 각각 1문항씩 총 4문항으로 사용하였다. 경험 정도를 묻는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 '매우 심하게 했다'의 Likert식 5점 척도이며, 아동의 낯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 정도의 평균은 각각 2.78과 2.85이었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1996년 7월 1일~7월 16일에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조사자들이 서울시의 14개의 유아원을 방문하였다. 아동들을 통해 어머니들에게 배부된 총 400부의 질문지 가운데 총 348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7%). 회수된 질문지들 가운데 불완전한 응답을 한 질문지들을 제외한 후 본 연구에 사용된 질문지는 총 288부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각 변인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분리불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혹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각 변인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 관계 및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아동과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 혹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떤 변인도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신체 접촉 정도, 훈육 개입 정도와 아동의 낯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관계

각 변인간의 전반적인 상호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돌이전 까지 시기에 어머니의 신체 접촉 정도와 어머니의 훈육 개입 정도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고, 아동의 낯가림 경험과 아동의 분리불안과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r=.28$, $p<.001$) (〈표 2〉).

어머니의 양육 행동 특성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관계는 〈표 2〉와 같이, 어머니의 신체 접촉 정도($r=.22$, $p<.001$), 훈육 개입 정도($r=.17$, $p<.01$)는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아동의 생활 초기에 어머니가 아동을 몸에 부쳐 키울수록, 또 어머니가 훈육에 많이 개입할 수록 어머니의 불리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의 낯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 정도가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낯가림 경험($r=.23$, $p<.001$) 및 분리불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 분리불안의 평균 및 표준편차 (괄호 안은 표준편차)

변 인	N	Mean (SD)	t 혹은 F
아동 성별			
남아	158	2.67 (.41)	-.66
여아	130	2.71 (.39)	
아동 연령			
36~47개월	163	2.69 (.43)	.04
48~59개월	125	2.69 (.37)	
아동 출생순위			
첫째	188	2.70 (.42)	.56
둘째 이하	100	2.67 (.37)	
어머니 연령			
30세 이하	56	2.71 (.40)	1.65
31-35	169	2.71 (.41)	
36세 이상	63	2.61 (.38)	
교육 수준			
고졸이하	108	2.71 (.39)	.79
전문대졸이상	180	2.68 (.41)	
직업			
주부	185	2.70 (.41)	2.45
학생/서비스직	24	2.63 (.46)	
자영업/회사원	70	2.69 (.38)	
의사/고위공무원	9	2.64 (.29)	
가정의 월수입			
-150만원	47	2.62 (.39)	1.17
151-300만원	165	2.69 (.43)	
301만원 이상	76	2.73 (.34)	

<표 2>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1. 신체접촉정도	-				
2. 훈육개입정도	.02	-			
3. 낯가림경험	.15**	.08	-		
4. 아동의 분리불안	.01	.11	.28***	-	
5. 어머니의 분리불안	.22***	.17**	.23***	.25***	-

* $p<.05$; ** $p<.01$; *** $p<.001$

안(r=.25, p<.001) 모두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유의한 관계를 나타내었다(<표 2>). 즉, 아동의 분리불안이 심할 수록, 그리고 낯가림 경험 정도가 심할 수록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어머니 및 아동 관련 변인들이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어머니의 신체 접촉 정도, 훈육 개입 정도, 아동의 낯가림 경험 및 아동의 분리불안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어머니의 분리불안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3>과 같이 모든 변인들은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해 주었고, 아동의 분리불안(β=.19, p<.001)과 어머니의 신체 접촉 정도(β=.19, p<.001)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같은 정도의 영향력을 나타냈으며 독립변인들의 전체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표 3>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한 각 변인의 중다회귀분석

독립변인	B	β	R^2	F
아동의 분리불안	.07	.19***	.15	12.24***
어머니의 신체접촉	.23	.19***		
어머니의 훈육개입	.13	.14*		
아동의 낯가림경험	.05	.14*		

* $p<.05$; *** $p<.0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비롯한 아동 초기 어머니의 신체 접촉 정도 및 훈육 개입 정도와 아동의 낯가림 및 분리불안이 3-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첫째, 아동과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아동의 성별, 연령 및 출생 순위와 어머니의 연령, 교육 수준, 직업 유무, 가정의 월수입 등의 변인 가운데 어떤 변인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들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과는 일치한다(김은형, 1995; 송진숙, 1992). 하지만, 아동발달과 관련된 많은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차이에 대해 상당히 비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는 것은 조사대상의 표집 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한 것으로서 더 많은 연구들을 필요로 한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 변인은 어머니의 분리불안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는데 비해(McBride & Belsky, 1988), 본 연구의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결과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로만 단순하게 범주화한 것에 기인할 수도 있다. 즉 어머니 직업에 의한 분리불안을 설명하는 데는 어머니의 취업 여부만이 아니라 어머니의 취업의 동기나, 직종, 선호도와 만족도같은 변인들이 함께 고려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둘째, 어머니의 신체 접촉 정도 및 훈육 개입 정도와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아동을 몸에 부쳐서 키울 수록, 그리고 아동 훈육에 많이 개입할 수록 어머니들은 분리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였다. 어머니의 신체 접촉 정도와 어머니의 불리불안간의 밀접한 관계는 Hock과 동료들(198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신체적으로 자녀와 접촉을 많이 하는 것에 익숙한 어머니들은 자녀와의 신체적 분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아동의 자조 능력의 발달을 위한 훈육에 어머니가 더 많이 개입할 수록 어머니들은 분리불안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자조 능력을 훈육하는데 개입을 많이 하는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들에 비해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고 나아가 자녀와

분리되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더 느끼게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까지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주로 아동의 분리불안과 관련시켜 연구되어 왔는데, 어머니가 자녀를 몸에 부쳐서 기르는 신체 접촉 정도(유명희, 1980)와 애정 정도가 높은 경우(박은숙, 1981)에 아동의 분리불안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진한 현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 밝힌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유의한 관계를 통해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그동안 연구되어 온 어머니의 사회인구학적인 특성이나, 자아 존중감과 같은 인성 특성 이외에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동의 낯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 정도와 어머니의 분리불안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어릴 때 낯가림을 심하게 경험한 경우와 현재 어머니와의 분리시에 불안을 심하게 나타내는 아동의 어머니가 분리불안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자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 연구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아동이 낯가림이나 분리불안을 심하게 경험할수록 어머니 역시 아동을 떼어놓는 데 불안해 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해 과거 아동의 낯가림 정도와 함께 현재 아동이 보이는 분리불안도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은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과 함께 어머니와 상호작용을 하는 아동의 특성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이며,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설명할 때 아동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세째,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해 어머니의 양육 행동 차원인 신체 접촉 정도와 훈육 개입 정도, 그리고 아동의 특성인 낯가림 경험과 아동의 분리불안 정도와 같은 각 변인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설명하는 변인들 가운데 현재 아동의 분리불안(β=.19, p<.001) 및 어머니의 신체 접촉정도(β=.19, p<.001)과 어머니의 훈육 개입 경험(β=.14, p<.05) 및 아동의 낯가림 경험(β=.14, p<.05) 의 순서로 영향력이 나타났고 이 네 변인의 전체 설명력은 15%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상관관계나 회귀분석의 설명력이 높은 편은 아니나, 이를 통해 어머니와 아동의 분리불안은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어느 한 쪽의 개인적인 특성의 영향만이 아니라 어머니와 아동 두 사람이 다 고려되어야 하며, 어머니와 아동의 상호작용에 의한 경험도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어머니들의 분리불안의 양상 및 관련 변인에 대한 연구가 매우 필요하며, 어머니의 인성적 특성이나 직업 등의 기존 변인들만이 아니라 아동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점과 아동과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경험을 어머니의 양육 행동을 통해 살펴 본 것은 의의있는 일이라 하겠다. 또한 지금까지는 주로 1세 이전 시기 또는 3세 정도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여 어머니 분리불안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본 연구에서는 그 이후의 시기인 36~59개월 아동의 어머니들로 대상 연령을 확장시켜 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 시기는 일시적인 분리(예: 유아원 등원이나 탁아)를 일상적으로 경험하여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 가능한 시기인데, 본 연구결과,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 점에서 어머니들의 분리불안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보인다.

한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 변인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3점 척도로 조사된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5점 척도를 사용한다면 보다 차별적인 응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아동의 낯가림이나 분리불안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특히 눈에 띄는 아동 행동이기 때문에 회고적인 보고도 큰 무리는 없겠으나, 연구 방법에 있어 관찰을 병행하지 못한 점에서 본 연구는 제한점을 가진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것은 횡단적 연구방법보다는 관찰을 병행한 단기종단적 연구를 통해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설명할 수 있는 변인

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는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진한 형편이지만, 날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취업모 환경을 고려할 때, 이를 주제로 한 연구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 참고문헌

1) 고경애 (1983). 모-자녀 애착관계가 유아의 행동발달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인지적 능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2) 김은형 (1995). 어머니의 역할관과 역할 갈등이 어머니의 격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3) 박성옥 (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4) 박은숙 (1981). 어머니의 양육 차원이 한국 유아의 낯가림, 격리불안 및 대물애착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5) 송진숙 (1994). 탁아의 질과 어머니 자아존중감에 따른 어머니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6) 유명희 (1980). 유아의 대물애착의 성격규명을 위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7) 이주혜 (1980). 유아의 낯가림 및 격리불안과 어머니 양육태도와의 관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8) 정영숙 (1976). 한국 유아의 낯가림과 격리불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9) 조복희, 박성옥 (1992). 어머니 분리불안 척도의 개발. 아동학회지, 13, 16-37.
10) Bloom-Feshbach, J., & Bloom-Feshbach, S. (1987). *The psychology of separation and loss: Perspectives on development, life transition, and clinical practice*. San Francisco: Jossey-Bass.
11) DeMeis, D., Hock, E., & McBride, S.(1986). The Balance of Employment and Motherhood : Longitudinal Study of Mother's Feeling About Separation From Their First-Born Infants. *Developmental Psychology*, 22, 627-632.
12) Hock, E. (1984). The transition to day care: Effect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infant adjustment. In R. C. Ainslie (ed.), *The child and the day care setting: Qualitative variations and development* (pp.183-205). New York: Praeger.
13) Hock, E., McBride, S., & Gnezda, T. (1989). Maternal Separation Anxiety: Mother-Infant Separation from the Matern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60, 793-802.
14) Hock, E., & Schirtzinger, B. (1992). Maternal Separation Anxiety: Its Developmental Course and Relation to Maternal Mental Health. *Child Development*, 63, 93-102.
15) Lutz, W., & Hock, E.(1995). Maternal Separation Anxiety: Relations to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of Infa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1), 57-72.
16) McBride, S., & Belsky, J.(1988). Characteristics,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07-414.
17) Stifter, A., Coulehan, C., & Fish, M. (1993). Linking Employment to Attach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and Interactive Behavior. *Child Development*, 64, 1451-1460.